

ALL NEW
WRANGLER
SPECIAL

Jeep Story

2018 Vol. 04



RESET THE LIMITS

Jeep Story

2018 Vol. 04



Jeep Lineup



Contents

- 06 **Rubicon Trail** Reset the Limits
- 14 **Launching Show I** All New Wrangler
- 20 **Wrangler Generation** Meet the Living Legend
- 26 **Undefeated** Let's get out of the way
- 30 **Jeep Road** Trace the Origin
- 46 **Launching Show II** All New Compass
- 52 **Compass_You** Urban Adventurers
- 54 **My Jeep Story** 전영표
- 60 **Jeep Life** Jeep Full of Adventures
- 62 **Brand News**
- 64 **Jeep Map** Service Center



2018 Rubicon Trail

미국 캘리포니아의 타호 호수로 가는 길에는 거친 화강암 길 이어지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있다. 1953년, 약 150명의 사람들은 Jeep를 타고 이 길을 가로질렀다. 35km 구간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프로드 구간, Rubicon Trail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Jeep의 역사는 함께 시작되었다. 이제, 기암괴석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Rubicon Trail에서 All New Wrangler는 세상의 한계를 새롭게 써내려 가고자 한다.

RESET THE LIMITS



Jeep® Sandstorm 컨셉트 카

누군가에게 한계는 멈춰서야 하는 종착점이지만, Jeep에게 한계란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모험이다.
지상고를 높이고 크롤비를 향상시킨 All New Wrangler에게 막다른 길이란 없다. 한계란 없다.

미국 서부에 위치한 타호 호수가 거대하게 펼쳐진다. 잔잔한 호수가 숨기고 있는 거친 산악 지대의 험난한 지형은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의 Rubicon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오프로드 여정을 나서는 길, 두려움이 아닌 거친 자신감만이 유유히 공기를 맴돈다.





극한의 연속. 차체만한 바위와 통나무가
경로 곳곳을 막아서고 급격한 오르막길과
거친 하강코스가 설 새 없이 펼쳐진다.
좁은 통로 바로 옆은 낭떠러지. 생명을 위협하는
Rubicon Trail을 넘으며 도전과 모험심이 들끓는
Jeep만의 DNA가 살아 숨 쉰다.



폭우가 쏟아지는 산악 지형을 이동할 때
All New Wrangler만큼 믿음직스러운 동반자도 없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며 같이 달린 여정.
누구도 오르지 못했던 정상에서 All New Wrangler가
다음 도전을 기약하며 승리의 축배를 든다.

ALL NEW WRANGLER SHOW CASE

11년만에 출시된 All New Wrangler.
Jeep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에 있는 흥정계곡을 찾았다.
한여름의 더위도 잊게 만든 'Wrangler Valley'의 뜨거운 현장으로 떠나보자.



WRANGLER



01 FCA KOREA의 파블로 로쏘 CEO가 All New Wrangler를 소개하고 있다.
02 All New Wrangler를 체험하기 위해 모인 기자들.

SHOW

좋아하는 브랜드의 새로운 모델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설렌다. 무려 11년만에 새로운 모델이 출시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한여름 더위를 무릅쓰고 찾아간 강원도 평창 흥정계곡에서는 Jeep의 아이콘 Wrangler의 새로운 모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Wrangler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현장. 저 멀리 누가 봐도 Jeep임을 알 수 있는 차 한대가 계곡의 물살을 가르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바로 11년을 기다려 탄생한 주인공, All New Wrangler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더욱 클래식해진 외모였다. CJ 모델을 연상시키는 둥근 헤드라이트와 Jeep의 상징인 7 슬롯이 이전 모델 Wrangler JK보다 더욱 아이코닉해졌다. 역시 오프로드의 최강자답게 등장도 남달랐다. 계곡의 거친 바윗길을 거침없이 내달렸다. 독보적인 오프로드 기능은 물론 디자인과 첨단 안전 사양까지 풀 체인지한 All New Wrangler. 그 동안의 기다림이 무색해질 정도로 완벽한 등장이었다.

HISTORY

All New Wrangler 론칭쇼 현장에는 Wrangler만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Wrangler History Zone>이 꾸며졌다. 평화와 승리를 위해 만들어진 Willys MB, 당대 이상적인 오프로드 차량으로 주목 받은 CJ-5, 최초의 Wrangler 브랜드로 탄생한 YJ, Trail Rated® 배지를 당당히 획득한 TJ, Jeep 역사상 최고의 성능으로 인정받은 JK가 연도 별로 전시되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탄생한 All New Wrangler가 마지막 자리를 빛냈다. 최초로 전장을 누비며 전천후 SUV의 시작을 알린 Willys MB의 위대함은 시대를 뛰어넘으며 All New Wrangler까지 계승되었다. Willys MB를 꼭 닮은 원형 헤드램프와 7-슬롯 라디에이터 그리고 독보적인 오프로딩 성능까지, All New Wrangler가 탄생한 배경에는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최고에 도전한 역사가 있었다. <Wrangler History Zone>에 있는 5대의 Jeep Generation을 살펴다 보면, 현재에 머물지 않고 끊임 없이 진화하며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Jeep 고유의 DNA가 사뭇 대단하게 느껴진다.



01



02

01 Wrangler의 시초이자 Jeep의 시작인 Willys MB.
02 40년 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CJ.





DRIVE

All New Wrangler의 탁월함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온로드와 오프로드에서 직접 몰아보는 것이다. 'Wrangler Valley'에 마련된 시승 코스는 온로드, 오프로드, 업 힐 코스, 락 크롤링 구간을 넘어 다시 내려오는 다운힐 등의 코스로 구성됐다. 왕복 12km를 달리는 동안 All New Wrangler의 모든 주행 성능을 경험할 수 있었다. 가장 처음 느낀 것은 확실히 줄어든 소음과 날렵해진 핸들링이었다. 온로드 능력이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여성과 데일리 차량 오너들에게도 매력을 어필하기에 충분했다.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는 급격한 경사길과 바윗길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으며 안정감을 선사했다. 새로운 2.0L 가솔린 터보 엔진과 함께 풀타임 4x4 상시구동 시스템인 Rock-Trac® (Rubicon)과 Selec-Trac® (Sport, Sahara)이 적용되어 전설적인 오프로드 성능을 뽐냈다. 보통의 사륜구동차가 주행하기 어려운 계곡이나 진흙길에서는 업그레이드된 4X4 성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한나절의 시승체험만으로 All New Wrangler가 또 한 번 한계를 뛰어넘은 최강의 아이콘임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01



02

01 All New Wrangler는 온로드 주행성능도 크게 향상되었다.
02 험난한 지형의 바윗길도 All New Wrangler라면 문제없다.



WRANGLER RC CAR ZONE
참가자들은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RC카 체험존에서 RC카의 매력을 즐겼다. Wrangler의 외관뿐 아니라 탁월한 오프로드 성능까지 완벽에 가깝게 재현한 RC CAR는 거친 계곡과 경사진 바윗길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주파하며 Wrangler의 모험정신까지 그대로 재현했다.



DIY PROGRAM
<DIY PROGRAM> 천막 아래에는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원하는 컬러의 노끈을 선택해 팔찌를 만들거나, 자신의 이름을 직접 새긴 키링을 제작했다. 천막 뒤로 흐르는 계곡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기념할 만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다.

Meet the Living Legend

All New Wrangler가 탄생하기까지, Jeep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오너가 있다.
불가능에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Jeep의 전설을 함께 만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들려준 Wrangler 이야기를 들어보자.



Willys MB

Jeep 브랜드의 시발점이 된 Willys MB. 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며 전천후 4X4 차량의 상징으로 자리했다. 이후 생산되는 모든 4X4 차량에 영향을 미친 최초의 SUV다.



1941~1945

CJ

MB가 군사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CJ는 민간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4X4 차량이다. 더욱 안락한 시트와 개선된 변속기, 스페어 타이어 장착으로 오랜 시간 동안 도전을 즐기는 이들의 일상과 여가를 도왔다.



1945~1985

Wrangler YJ

최초로 Wrangler라는 이름을 갖게 된 YJ. 와이드 트랙, 각진 그릴을 가졌으며, Jeep 차량에서는 처음으로 직사각형 헤드라이트를 적용했다.



1987~1996

Wrangler History Road

77년이란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History Road. Jeep의 시초 Willys MB부터 2018년 새롭게 탄생한 All New Wrangler까지 그 발걸음을 따라가보자.

2018~



All New Wrangler

Wrangler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탄생한 All New Wrangler. Jeep의 클래식함이 느껴지는 대담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적용한 안전사양으로 또 한 번 Wrangler의 한계를 갈아치우며 세상에 등장했다.

2007~2018



Wrangler JK

민음직한 오프로드 핸들링과 렉서리한 온로드 승차감을 매끄럽게 조화시킨 JK.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으로 Jeep Trail Rated® 인증 배지를 받으며 강력한 퍼포먼스를 증명했다.

1997~2006



Wrangler TJ

뛰어난 온로드 핸들링과 전설적인 오프로드 성능을 갖춘 TJ. 2003 Wrangler Rubicon은 디퍼런셜 잠금 장치와 머드 타이어를 장착하고 당시 역사상 성능이 가장 좋은 차로 평가받았다.



Wrangler YJ
김수연

“식구들과 호젓한 곳을 찾아 캠핑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YJ 오너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가족만이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캠핑 장소를 찾다 보니 험난한 지형에 특화된 YJ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YJ는 겉으로는 단순해 보어도 자기만의 특별한 개성이 뛰어난 차입니다. 아무에게나 운전석을 내어주지 않죠. 험난한 지형과 비포장도로를 끊임 없이 도전할 때 비로소 ‘아, 이 차의 주인이 됐구나’ 느낍니다. 열정이 없는 오너에겐 자신의 가치를 숨겨 버리죠. 한번은 우음도로 출사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초원의 사파리 여행을 느끼게 하는 정말 독특한 곳이었죠. 넓은 진흙밭과 갈대밭 곳곳에 깊게 파인 웅덩이 하며, 마치 원주민 세상에 온 듯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YJ의 능력을 확실히 알았죠. 다른 차들은 진흙에 빠져 허우적거리려도 YJ는 묵묵히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깊은 웅덩이를 지나며 차와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 들었지만 YJ는 끄떡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YJ를 몇 년 간 탄 것 자체가 불가능에 도전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익숙해진 습관처럼 제가 YJ한테 길들여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못 가는 길이 없거든요.”



●● 도전하는 자만이 탈 수 있는 차. 바로 Wrangler YJ입니다. ●●



Wrangler TJ 신대섭

"비가 철철 내리던 장마철에 TJ와 함께 깊은 산 속 임도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지에 온 것 같았죠. 바윗길 사이로 넘치는 개울을 맞닥뜨렸을 때는 다시 돌아가야 하나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 차를 믿고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죠.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거침없이 가더라고요. 왜 돌아가려 했나 싶은 정도로요. TJ를 만나고 난 후에는 취미도 늘었습니다. 산길을 거뜬히 올라가는 TJ 덕분에 트레킹, 캠핑, 패러글라이딩 등 많은 것에 도전하게 되었죠. 저는 정비를 하는 사람이라 자동차의 객관적인 기능은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TJ를 막상 타보면서 뛰어난 기능에 그 이상으로 놀랐습니다. 정말 가지 못하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인지 Jeep 소식만 들으면 너무 설렌답니다. Jeep를 타면 기대하지 못한 도전과 열정을 만나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망설임 없이 Wrangler를 추천합니다. Wrangler와 함께라면 위대한 자연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
Wrangler TJ와 함께한 후
취미가 부쩍 늘었죠.
●●



●●
Wrangler JK,
화려한 디자인을 보고 첫눈에 반했지만
그 속은 더 짝 차 있더라고요.
●●



Wrangler JK 홍화두

"제 차에게는 이름이 있는데요, 루비콘 앞글자를 딴 '루비'입니다. 색도 빨간색이고 너무 앙증맞아서 그렇게 지었죠. 저는 20년차 스타일리스트다 보니 처음엔 JK의 강렬한 외형만 보고 '루비'를 선택했습니다. RC카 같기도 하고 거칠면서도 장난스러운 디자인을 보고 첫눈에 반했죠. 디자인도 좋았지만 타고 나니 주행할 때 묵직한 무게감이 있어 더욱 안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접촉 사고도 몇 번 났었는데 차가 멀쩡했습니다. 제가 루비를 탄 지 얼마 안 됐을 때, 강원도 산골 마을로 촬영을 나가게 된 적이 있어요. 눈발이 젖어 있는 곳에 차를 주차했는데 막상 다시 나가려고 보니 바퀴가 계속 헛도는 거예요. 주변 아저씨들이 체인을 달아야 한다고 도와주는데 그 순간 차 안에 있던 변속기어를 찾아냈죠. 변속기어를 당기니 정말 거짓말처럼 차가 위로 들리고 눈발을 훌쩍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때 '루비'의 숨은 성능을 알게 됐어요. 화려한 컬러 뒤에 감춰진 굳건함이 저와 닮은 것 같아 정이 많이 가요. 저도 걸모습과 달리 속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요즘 '루비'가 꼭 인생의 동반자 같아요. '루비'는 제가 가는 모든 현장을 같이 다니며 과묵하게 저를 지켜주죠. 정말 든든해요. 저처럼 자신과 닮은 차를 만나는 것, 어쩌면 축복 아닐까요?"

Let's get out of the Way

입사 11년 차, 직장을 박차고 나왔다. 전직 자동차 잡지 편집장과 자동차 칼럼니스트가 떠난 오프로드 이야기. 두 남자의 여정에 함께한 All New Wrangler의 모습도 함께 들여다 보자.

writer 김형준 자동차 칼럼니스트



- 01 험난한 오프로드 여행을 위해서 준비는 필수.
- 02 All New Wrangler와 인생을 찾는 여행이 시작됐다.
- 03 쉽 없이 오르는 산길이 우리의 인생과 닮았다.



#1 Scene STORM OUT OF THE COMFORT ZONE

나왔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퇴사였다. 마지막 직장인 <모터 트렌드>에서는 11년 동안 머물렀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11년 동안이 아니라 '머물러서'.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사직서를 내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자동차 기자로, 잡지 편집장으로 누려온 특혜를 내려놓고 박차고 나오는 건 어렵지 않은 선택이었다.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닌 혜택이었기 때문이다. 출근하지 않는 첫째 날, 거실 소파에 앉은 내 자신이 어색했다. 시계를 보며 그맘때쯤 쳐내고 있었을 회사 업무를 떠올렸다. 20년 가까이 반복해온 일상의 루틴이 하루아침에 펼쳐질 리 만무했다. 그런데 그 순간, 목직한 연기라도 가득 찬 듯 가슴이 답답해졌다. 퇴사 소식에 인생선배가 건네던 조언이 떠올랐다. "혼자 여행을 다녀와. 잠깐이든, 길게든." 떠나기로 했다. 20년 가까이 쌓인 묵은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박박 때를 벗겨낸 뒤 새 옷을 걸쳐 입기 위해서도. 특별한 목적지도 없는 여행이었다. 하지만 생전 해본 적 없는 여행이고 싶진 않았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거라면 십수 년 익숙해진 일이었다. 혼자 하는 여행도 아니었다. 낯선 곳으로 떠나는 익숙한 여행을 위해 믿을 만한 동행을 찾았다. 십수 년 알아왔고 나에 관해서라면 고맙게도 무한대의 믿음을 내비쳐주는 인물. 업계 동료이자 인생 선배이며 자동차 여행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능력도 있는 사람. 자동차 칼럼니스트 나윤석이었다. 여정을 함께할 자동차도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Jeep가 키를 건네주었다. 지난 7월 출시한 All New Wrangler 론칭 에디션이었다. 11년만에 풀 체인지한 SUV의 아이콘. 심지어 깎두기 같은 스테르드의 올 터레인 타이어까지 끼운 루비콘 모델. 어떤 여행이 될지 볼 보듯 환했다. 도로의 경계를 두지 않고 달리는, 궤도를 벗어난(Off the road) 전천후 여행의 시작이었다. 짐작보다 훨씬 편안한 여정이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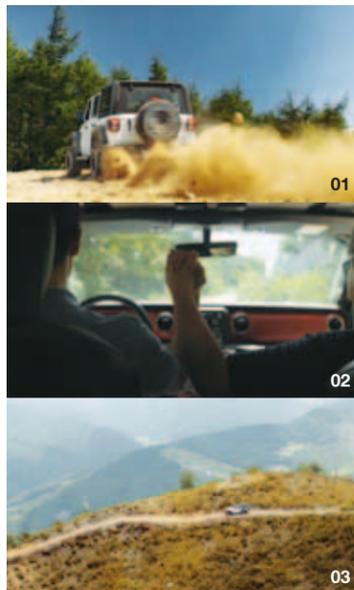


01 안전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 새로운 길에 나선 두 남자.
02 All New Wrangler는 오프로드에서의 편안함뿐만 아니라 매끈하고 부드러운 온로드 성능도 함께 갖췄다.

#2 Scene
PUSH THE LIMITS

Wrangler는 세대를 막론하고 오프로드에서 가장 편안한 자동차였다. 신뢰의 이야기인 동시에 주행품질의 이야기다. 적확하겐 '오프로드에서만' 편안한 차였다. 그곳까지 오가는 길은 운전자 자신의 대단한 체력과 Wrangler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을 요구했다. 그런데 All New Wrangler는 달랐다. 운전대를 돌려보는 순간 강하게 '축'이 왔다. 마침내 일상적 승용차의 영역에 들어왔음을. 과장이 아니다. 스티어링의 파워 어시스트가 자연스럽게 매끈하게 작동한다. 운전대가 돌아가는 느낌뿐 아니라 차가 방향을 바꾸는 태도도 부드럽다. '반 깎두기' 타이어를 신고 있는데도 움직임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심지어 승차감조차도, 사다리꼴 프레임 위에 얹은 강철 차체를 뒤흔드는 진동이 자취 없다. 소음까지 깔끔하게 정돈돼 있어 운전대는 물론 바닥이나 기어박스 주위 격벽이 차분하기 그지없다.

All New Wrangler의 '일신(一新)'한 포장도로 몸가짐은 속력을 높여보면 한층 도드라진다. 맞바람이 차체를 때리는 소리, 차체의 찌걱거리는 잡소리는 잦아들었고 타이어가 노면을 긁으며 나는 불편한 소음도 일맞게 걸러진 채로만 들려온다. 고속도로 위에서 동승자와 목청 높여 대화할 일은 사라졌던 이야기다. 2속 트랜스퍼 케이스를 갖춘 파트타임 4WD 구동계는 또 어떨고, 신형의 4WD 시스템은 2L-4H-4L의 기존 3가지 구동방식에 4H 오토를 추가했다. 일반적인 풀타임 4WD처럼 앞뒤 바퀴에 꾸준히 엔진 힘을 전하는 기능이다. 4H 오토는 고속도로는 물론 시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기존 Wrangler의 2H 모드로 살 떨리는 고속도로 주행 경험을 해봤거나 시내에서 4H 모드인 채로 유턴하다가 튼니바퀴 부러지는 듯한 소음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은 이 기능의 추가가 더없이 반가울 터다.



01 거친 길에서 신뢰감을 주는 존재는 많지 않다.
02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어떤 여정에서도 안도감을 준다.
03 때로는 까마득한 산꼭대기 외길을 내달린다. 다음을 알 수 없는 인생처럼.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새로운 가솔린 파워트레인인데, 음, All New Wrangler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장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신 2.0L GME-T5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최고출력 272마력과 최대토크 40.8kg·m의 성능으로 기존 3.6L V6 펜타스타 엔진 자리를 대신한다. 중요한 점은 파워의 숫자가 아니라 운전자가 느끼는 힘인데, 저회전부터 터보 지체현상 없이 자연스럽게 들직한 힘을 꾸준히 내 가속이 무척 손쉽다. 오프로드 주행에 집중해 파워를 저속에 집중시킨 엔진인가 싶지만 웬걸, 4,000rpm 이상 중고속까지도 힘이 뚜렷하다. 비결은 48V 전기 시스템과 연결된 스타트 제너레이터 모터로, 이 장치가 터빈이 제 기능을 하기 전까지의 저회전 때 엔진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한다. 저회전 토크 어시스트와 터보차저에 의한 중속 이상에서의 출력 증가가 이질감 없이 매끈하게 이어진다는 점도 흥미롭다. 심지어 이 엔진은, 본격적인 오프로드 여정에서도 저회전대 출력의 이점을 특특히 발휘했다. All New Wrangler의 달라진 면면은 주행 성능에만 집중해 있지 않다. 겉모습에선 LED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의 현대적인 감각이 도드라지고, 인테리에는 승용차에 가까운 고급 SUV 못지않은 감성품질을 갖추고 있다. 예컨대 두툼한 기어레버를 다루는 느낌은 여느 승용차와 다르지 않다. 프레임이 거의 없는 룸미러, 7인치 TFT 디스플레이를 담은 계기 클러스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이 가능한 8인치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U-Connect) 등 현대적인 기능도 빠지지 않는다. 프레임리스 룸미러는 클래식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동시에 더 나은 전방 운전시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다.

#3 Scene
SET THE NEW BAR

결국 우리는 박차고 나왔다. 나윤석 역시 수년 전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의 매니저라는 안락한 자리에서 내려와 칼럼니스트로 안착했으니 나와 다를 바 없이 박차고 나온 이였다. All New Wrangler라면 변신 자체가 화제일 수밖에 없는, 자동차 세상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아이콘. 그 역시 11년 만에 풀 모델 체인지를 겪었으니 그와 나오는 또 다른 맥락에서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온 주인공이라 말할 수 있겠고, 박차고 나온 자들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됐다.





TRACE THE ORIGIN

모든 위대함에는 근원이 있다.
SUV의 시작이자,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All New Wrangler에게도 Willys MB라는 근원이 존재한다.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구분하지 않고 거침없이 달리는 All New Wrangler와 함께,
대한민국을 횡으로 잇는 한강의 근원을 찾아 떠났다.

해발 800m의 고도에서 흘러내린 한강의 물길은
산을 따라 낮게 이어지며 강원도와 경기도를
거쳐 서울로 흐른다. All New Wrangler는
그렇게 이어진 한강의 물줄기를 거슬러 오르며,
때로는 높은 산, 깊은 숲을 휘감는
험난한 고갯길도 오른다.



하루 2,000L의 맑은 물을 분출하는 강원도 태백 검룡소에서 발원한 한강은
정선, 영월, 단양, 충주를 지나 여주, 양평, 팔당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을 통해 역동적인 거대 도시 서울에 다다른다.
강물은 다시 서쪽으로 흘러 인천 강화군의 하구에 이른 뒤 총 연장 494km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서해바다와 합쳐진다.
All New Wrangler는 서울을 기점으로 한강의 근원을 찾아 물길을 거슬러오르는 여정을 시작한다.





산등성이를 따라 굽이치는 비탈길과 함께
All New Wrangler는 나아간다. 최초의 길을 걸었던
Jeep의 모험처럼, 우리는 가보지 않았던
또 다른 모험을 준비한다. 그렇게 매 순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변하지 않는 Jeep만의 Origin을 계승해간다.

유달리 뜨겁던 여름의 끝무렵. 예기치 않은 큰비가 쏟아졌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폭우로 인해 파이고 침수된 도로가 번번이 앞을 가로막기도 했다. 이런 돌발상황은 All New Wrangler에게 또 하나의 즐거운 모험이 더해지는 과정일 뿐이다.



드디어 도착한 한강의 발원지. 이 작은 소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기나긴 여정을 거쳐 드넓은 서해에 도달한다.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는 All New Wrangler의 다음 여정은 어디로 이어질까. 새로운 모험을 기대해본다.



Trace the Origin with a Pro Paddler

산악 지형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짜릿한 모험이 오프로드라면, 강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짜릿한 모험은 카야킹이 아닐까. Trace the Origin의 여정에 함께했던 여정엽 선수와 함께 급류 속에서 즐기는 익스트림 카약에 대해 들어보자.

카약과 카누의 차이는 무엇일까. 섣뜻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처음 여정엽 선수를 만났을 때 꺼낸 질문이다. "간단합니다. 카약은 양날 노를 활용하여 배를 짓고, 카누는 외날 노를 사용합니다. 또한 급류용 카누를 제외한 일반 카누는 배의 뒷부분이 열려 있는 오픈데크가 주종을 이루며, 카약은 배의 뒷부분이 덮여 있죠." Trace the Origin 여정은 강과 산을 오가며 반복됐다. 발원지를 찾아가는 여정이라 하여, 항상 강을 따라 이동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도심 속을 달리고, 가끔은 험난한 오프로드도 거쳤다. 발원지에서 시작된 맑은 물이 서해 바다로 흘러가기까지의 다양한 과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한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여정엽 선수도 함께였다. "All New Wrangler를 타고 오프로딩을 즐길 때, 익스트림 카약과 비슷한 감흥을 느꼈습니다. 급류 지역에서 카약킹을 할 때면 사나운 맹수의 등에 탄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물살이 거칠고 드세기 때문이죠. All New Wrangler를 탔을 때도 그랬습니다. 으르렁대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만큼이나 운전자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오프로드가 눈앞에 펼쳐져도 발 밑에서 으르렁대는 All New Wrangler보다 압도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01

그와 함께하는 494km의 긴 여정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 카약을 시작한 지도 약 15년이 지났습니다. 국내에서 카약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시절부터 준비했죠. 지금은 송강 카누학교에서 카약 수석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카약 문화를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자부합니다. 근원까지는 아니어도, 근원에 근접한 곳에서 카약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셈이죠. 그래서 이번 여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Jeep가 최초의 SUV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듯, 그 또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카약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프리스타일 카약 세계 랭킹 33위의 성적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계를 극복해낸 것이다.
 “처음 접하신 분들은 카야킹이 위험한 스포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죠. 주로, 전신 근육을 활용하기 때문에 운동의 목적으로도 훌륭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강의 상류 지역에서 즐기기에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매력도 있죠.”
 국내는 물론 우간다의 나일강, 칠레 등 다양한 곳에서 카야킹을 즐기던 여정업 선수, 그에게 초보자들도 쉽게 카야킹을 즐길 수 있는 국내 장소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카약을 제대로 즐기고 싶은 분들께는 강원도 인제의 내린천을 추천 드립니다. 제가 카약을 가르치는 장소이기도 하죠. 초보자부터 중, 상급자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코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강원도 진부, 경남 경호강, 경북 이나리강, 철원 한탄강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Trace the Origin의 여정은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에 도착함으로써 비로소 막을 내렸다. 20m 넘게 이어지는 계단식 폭포를 따라 흐른 발원수는 태백의 산자락을 따라 흐르며 길게 이어진다. All New Wrangler는 최초 SUV가 시작되었던 Willys MB의 근원을 기억한 채,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세상의 한계를 새롭게 써내려 간다.



02

01 카약은 배의 뒷부분을 덮어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음으로써, 체온을 유지한다.
 02 급류를 극복하고 카야킹을 마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짜릿함이 있다.





올림픽대로

서울의 한강 남부를 길게 잇는 Trace the Origin의 시작 코스다. 태백까지의 여정을 생각했을 때, 이른 아침부터 출발하는 것을 추천한다. 운이 좋다면 한강을 배경으로 한 멋진 일출을 감상할 수 있겠다.

팔당댐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시 사이에 위치한 팔당댐은 팔당대교와 팔당호 등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서울의 도심뷰를 벗어나 맞이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즐겨보자.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여유로운 경관이 기다린다.



여주

팔당에서 양평을 거쳐 여주로 향하는 구간 내내 한강을 따라 달리는 코스가 이어진다. 이곳에서 잠시 차 머리를 돌려보자. 여주에는 '신록사'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절이 있다.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 50에 선정된 장소이기도 한 이곳에서 남한강을 배경으로 한 멋진 사찰을 감상해보자. 경건한 마음은 덤이다.

충주호

서울을 벗어나 맞이하는 두 번째 댐, 충주댐을 지나면 맞이하는 인공호수다. 총 6,600㎡의 광활한 넓이를 자랑하는 충주호는 충주에서 단양에 위치한 도담삼봉까지 이어질 정도로 거대하다. 충주댐 초입부터 충주호까지 이어지는 코스 또한 일품이니, 마음껏 드라이빙의 여유를 즐겨도 좋겠다.

충주호

청풍문화재단지

단양

단양~영월

한강 상류의 아름다운 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이다.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굽이치는 한강 물결은 운전자를 뉘 놓게 할 정도로 아름답다. 저 멀리 펼쳐진 산맥을 바라보면, 동양에서 수목화가 유행하게 된 이유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영월



정선

아름다운 강변 도로를 마음껏 즐겼다면 이제, 오프로드로 떠나보자. All New Wrangler의 여정에 오프로드가 빠질 수 없으니까. 다만,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말자. 오프로드는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연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태백 검룡소

마침내 한강의 근원에 도착했다. 검룡소는 해발 800m에 위치해 있으며, 발원지답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자랑한다. 주차장에서 정상까지는 성인 걸음으로 약 30분이 소요된다. 웅숭음치는 맑은 물을 바라보며 지금의 나를 있게 한 'Origin'은 무엇일까 떠올려보자. 조금은 달라진 스스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Trace the Origin Road Map

한강 하구부터 발원지까지 이어진 Trace the Origin의 여정을 소개한다. 서울의 한강 뷰부터 아름다운 자연 경관, 험난한 오프로드 코스까지. All New Wrangler가 거슬러오른 길을 따라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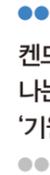
Where your taste in music comes from

누구에게나 Origin이 있다. 지금은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지만 나의 문화적 기원은 힙합이다. 힙합음악은 어린 시절의 나를 뜨겁게 만들었다. 세상의 때를 탄 면이 있어 예전 같지 않지만 말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Origin이 있을 것이다. 뮤지션이라면 더욱 그렇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Origin을 찾았던 뮤지션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writer 강그늘 작사



켄드릭 라마가 전자악기음을 최소화한 'To Pimp A Butterfly' 앨범을 발매했을 때, 나는 몇 주 간 심대처럼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 '기원이 있기에 진화가 있다.'

요즘엔 어느 장르든 90년대만큼 오리지널을 진지하게 추구하면 좀 우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힙스터들이 즐기는 감각적인 문화에도 기원이 있을 것이다. 음악을 감상할 때 '거룩함을 제외한다'는 면에서 21세기식 감상법은 훌륭하다. 그리고 기원을 존중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 같다. '지금, 여기' 서울에서 힙스터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을지로에 가보면, 80년대 일본 시티팝이나 옛날 레게음악이 자주 흘러나온다. 각광받는 요즘 밴드들 중에도 그 시절의 느낌을 현대적으로 잘 살리는 팀이 많다. 내게 을지로의 문화는 이렇게 해석된다. '기원은 진보되었다'.

올 여름 몇 번의 공연을 보러갔다. 그 중 한 번은 디안젤로를 제외하고 현존하는 뮤지션 중 가장 영접하고 싶던 켄드릭 라마의 공연이었다. 공연을 본 많은 이들이 음향 사고 때문에 좋지 않은 추억을 남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다. 몇 년만에 공연장에서 부끄러움을 잊고 점프했다. 켄드릭 라마가 전자악기음을 최소화한 'To Pimp A Butterfly' 앨범을 발매했을 때, 나는 몇 주 간 심대처럼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 '기원이 있기에 진화가 있다'.

건 청각을 떠난 공감각의 문제였다. 말살임 없이 예매했다. 그리고 명백히 하루종일 고생하다 해질녘에 그들을 만났다. 밴드 이름과 음악의 싱크로율이 100% 일치하는 몇 안 되는 밴드인 Cigarette After Sex의 보컬 그렉 곤잘레스의 목소리는 정말 특별하다. 나는 처음에 그 목소리가 여성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다. 남자 보컬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조금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받은 쇼크는 더 컸다. 그때까지 그들의 프로필 사진이나 라이브 영상을 본 적이 없었다. 퍼포먼스, 외모, 라이브는 그들의 음악에서 받은 인상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기원 얘기를 하면서 Cigarette After Sex 얘기를 꺼내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가사를 이루는 정서와 밴드 컬러는 '그들만의 기원'이 쏟아내는 것이다. 이 밴드의 자연스러움은 자신들의 깊은 곳에 있는 오리지널한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물론 팀의 중심인 송라이터 그렉 곤잘레스의 힘이 크다.

훨씬 더 하드코어한 로맨틱 밴드 The Czars의 존 그랜트가 그랬듯이, 송라이터의 감성과 그들이 쓰는 시와 같은 가사의 힘이 밴드의 척추를 이루는 것이다. 기원을 찾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자신이 물려받은 DNA를 찾아가는 길. 90년대 웨스트코스트 힙합의 코어였던 켄드릭 라마가 유령이 된 대선배 투팍에게 '가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뿌리를 찾아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두번째는 Cigarette After Sex의 경우처럼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가장 깊은 정서적 심연을 찾아가는 길이다. 당신이 기원을 찾아나서는 날이 온다면, 당신은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걱정 마시라. 머리가 찾기 전에 가슴이 길을 찾을 것이다. 아니다. 기원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Origin of Music



Raise Vibration
Lenny Kravitz

레니 크라비츠의 새 앨범이 나왔다. 그는 하나의 장르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뮤지션이 아니다. 장르를 넘나들며 끝없이 변화하는 '실험병'이 있다. (히비행록이나 김창완처럼) 하지만 어떤 장르를 섞어도 신곡을 들으면 어김없이 '레니 크라비츠'가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만의 색채가 강한 뮤지션이다. 변화를 자주 시도하다보니 별명이 많다. 하지만 그는 세기말의 지미 헨드릭스도 아니고, 보급형 프린스도 아니다. 레니 크라비츠는 레니 크라비츠다. 5번 트랙 'Johnny Cash'를 듣자마자 애플뮤직의 '드라이브' 플레이리스트에 바로 추가했다. "자니 캐쉬처럼 날 붙잡아줘(Hold on)" / "내가 엄마를 떠나보냈을 때" 라는 가사에 꽂혀버렸다. 간단히 'Stand By My Woman', 'Heaven Help'를 잇는 레니 크라비츠 표 발라드가 제대로 나온 느낌이다.



DARKROOM
Simon Dominic

인간의 DNA에는 기원을 찾고자하는 뿌리깊은 욕망이 있다. 사이먼 도미닉이 긴 침묵을 깨고 발표한 정규 앨범 다크룸의 1번 트랙 'Roommate Only'는 고통스럽게 자신의 Origin을 찾아가는 "한 레퍼의 생의 중반"을 담고있고 있다. 앨범 전반의 컨셉트가 된 원실 이미지는 기억을 더듬어 유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은 그의 기원이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유년기의 사진관에서 자신의 오리지널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Last Resort"라고 고백한다. 앨범을 플레이하고 있으면 유명한 씬디로서의 삶 이면에 있는 인간 정기석의 지친 얼굴이 떠오른다. 혹은 씬디의 흥이 사라졌다고 불만이지만, 필자는 수직이라고 생각한다. RZA와 GZA와 SZA도 동의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2번 트랙 'Roommates Only'의 가사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Illmatic
Nas

힙합의 기원을 찾자면, 이 앨범보다 훨씬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힙합의 에너지가 폭발하며 문화적인 영향력을 넓혀가기 시작한 90년대 초 '골든 에라'의 태동기를 기억해보자. Wu-tang Clan, 2Pac, Notorious B.I.G 등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들 사이에 꽃피고 왜소한 뉴욕 소년 Nas가 서 있다. 엄청난 스토리텔링 능력과 리듬을 쫓아는 독보적인 플로우, 목소리는 과격한 퍼포먼스 없는 그를 퀸즈의 왕좌에 올려놓았다. 그를 낳은 건 팔팔이 퀸즈의 거리였다. 하지만 그의 데뷔작 illmatic은 앨범을 프로듀싱한 Large Professor를 비롯해 80년대 뉴욕힙합을 주름잡은 Grand Master Flash, Kool G Rap 등 선대의 유산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작품이었다. 기원이 있기에 진화가 있다. 문제는, 자신의 Originality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내는가에 있다.



ALL NEW COMPASS

ALL NEW COMPASS FOR URBAN ADVENTURERS

배낭을 짊어지고 떠나야만 모험이 아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빌딩숲이나 한강이 보이는 도로 위에서도 우리는 모험을 즐길 수 있다.
All New Compass와 함께, 도시에서 즐기는 짜릿한 모험을 시작해보자.

All New Compass

우리 앞에 새롭게 등장한 All New Compass,
온로드와 오프로드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All New Compass가
도심 속 새로운 모험을 선사한다.



01 All New Compass의 출시를 기념하는 파블로 로쏘 FCA KOREA CEO.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이 새롭게 단장했다.



01



02

경기도 파주에 있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All New Compass의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분주했다. 도심에 살지만 액티브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며 사는 Urban Adventurers를 위해 파주 미메시스는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오늘의 주인공 All New Compass가 등장했다. 약 8년만에 일궈낸 완벽한 변화다. FCA KOREA의 CEO 파블로 로쏘는 “Jeep의 핵심 라인업을 완성한 All New Compass를 통해 SUV 리더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ll New Compass는 2.4L I4 타이거샤크 멀티에어2(Tiger Shark MultiAir2) 기술린 엔진과 동급 최초로 9단 자동변속기가 조합됐다. 최고 출력 175마력(6,400rpm), 최대 토크 23.4kg·m(3,900rpm)의 퍼포먼스를 내는 Compact SUV이며, 온로드와 오프로드 모두 완벽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실내는 세련되고 우아한 디자인과 고급 편의사양이 적용됐다. 사다리꼴 모양의 중앙 스택 베젤과 크롬 장식의 프리미엄 인스트루먼트 패널 디자인은 All New Compass의 독보적인 개성을 완성시켰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달릴 수 있는 Compact SUV로 탄생한 All New Compass는 수많은 Urban Adventurers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사할 예정이다. All New Compass의 화려한 시작을 주목하자.



Innovative Design

도시의 모험가를 위한 라이프스타일은 All New Compass의 디자인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77년간 이어져온 Jeep 고유의 세븐 슬롯 그릴과 감각적인 블랙 헤드램프 베젤은 더욱 개성 있고 새로운 디자인을 완성했다. 루프에서 백까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라인도 All New Compass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디테일 중 하나다. 행사장 2층에 구성된 <Design Zone>에는 Jeep의 수석 디자이너 '크리스 피치텔리'의 디자인 스케치가 전시되었다. 젊음과 모험을 상징하는 All New Compass만의 디자인을 탄생시키기 위한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30대의 젊은 층으로 구성된 All New Compass 디자인 팀은 도시의 모험가들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활동, 트렌드와 고급스러움의 경계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다.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완벽한 조화. All New Compass는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다.

Perfect Performance

시승은 경기 파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을 출발해 북부기상관측소를 거쳐 돌아오는 왕복 84km 코스와 오프로드 체험 코스로 구성됐다. 대개 Jeep하면 거친 야생을 떠올린다. 하지만 All New Compass를 경험해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부드럽다. 준중형 SUV답게 묵직한 맛도 있다. 살짝 높은 시트 포지션은 넉넉한 시야까지 확보해 준다. 도시 모험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온로드 주행에 상당히 신경 쓴 탓이다. 자유로를 달리는 All New Compass의 거침없는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코스는 파평산에 위치한 북부기상관측소로 이어졌다. 해발 500m에 이르는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All New Compass는 Jeep 특유의 DNA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역시 피는 속일 수 없다. 본격적인 오프로드는 인공 구조물로 만들어진 코스에서 진행됐다. 장애물 돌파 구간과 급경사 구간, 범퍼 구간, 샌드 모글 구간, 물웅덩이, 계단식 주차구역 등 다양한 험로가 우리를 맞이했다. All New Compass의 진정한 매력이 다시 한 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장애물 돌파 구간, 계단식 주차구역 등에서는 한층 진일보된 액티브 드라이브 시스템(Jeep Active Drive I)을 활용하여 여유롭게 지형을 극복할 수 있었다. 샌드 모글 구간, 물웅덩이 코스 같은 험난한 지형에서는 셀렉터레인 시스템(Selec-Terrain System)이 빛을 발했다. 역시 Jeep다.



01



02

01 노면 상태에 따라 네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주행모드로 어떤 구간에서도 탁월한 주행성을 뽐낸다.
02 9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돼 더욱 매끄러운 가속이 가능하다.



Urban Adventurers

우리의 도시는 모험으로 가득하다. 네온사인에 반짝이는 야경이 그렇고, 하늘 높이 솟구친 빌딩숲이 그렇다. All New Compass 론칭쇼 3층에는 그러한 도시의 모험을 즐길 수 있도록 <Adventure Zone>이 마련되었다. 하늘에서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 VR 체험존을 비롯하여 짜릿한 타격감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복싱 체험존, 신체적 한계를 기술로 극복해내는 주짓수 체험 등 각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었다. 도시의 예비 모험가들에게 All New Compass는 말한다. 모험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고.



Urban Adventurers

도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많다. All New Compass와 함께 도시를 넘나든 모험가들을 소개한다. 당신도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도시의 모험가가 될 수 있다.

안정은 (Runner)

@ totoolike

러닝, 서핑, 테니스를 주로하며, 운동을 통한 건강한 삶을 공유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어. 런트립을 기획하고 꾸준히 마라톤에 참가하며, 러닝의 즐거움을 알리고 나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종 러닝 정보와 팁을 공유하기도 한다.



제이디 (Contents Creator)

@ wassup_jd

SNS를 통해 스타일리시하고 힙한 일상을 공유하는 아빠 콘텐츠 크리에이터. 수영부터 테니스, 자전거 라이딩, 스케이트 보드까지 다양한 액티비티를 종류 막론하고 다이내믹하게 담아낸다.



이현진 (Swimmer)

@ lovelyswimmer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수영 방법을 알려주는 수영 코치 & 크리에이터. 직업적 특성을 살려 멋진 수중 사진 및 동영상상을 즐겨 게시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액티브한 일상을 보여준다.



김호경 (Actor)

@ hkim0908

도전정신을 가지고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배우. 테니스, 복싱, 풋살 등 새로운 활동을 마주할 기회가 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그 순간을 받아들인다.



최우준 (Photographer)

@ on_off_pictures

국내외 풍경을 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이면서, 아웃도어 라이프 역시 활발하게 즐긴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남달라 최근 자동차 관련 리뷰를 하는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다.



김비오 (Pro Triathlete)

@ beehokim

회사원이자 프로 철인 3종 선수로, 모험을 포기하지 않는 에너지이저. 이제는 철인 3종을 넘어, 러닝과 트레일러닝까지 섭렵하며 운동의 즐거움을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



MY
JEEP
Story

The Hidden Story Of The Stage

Jeep는 운전자가 도로 위에 펼쳐진 자신만의 스테이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기 Jeep처럼 관객과 아티스트가 스테이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뒤에서 노력하는 또 한 사람이 있다. 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Renegade

전영표 — 콘서트 디렉터

때로는 퇴근길 이어폰으로 듣는 잔잔한 음악보다, 가슴에 꽂히는 강렬한 사운드가 필요할 때가 있다. 스마트폰과 일반 스피커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사운드로 가득한 곳. 수천 명의 관객과 아티스트가 한마음으로 외치는 콘서트 무대를 디렉팅하는 전영표 감독과 함께 무대의 시작과 끝을 함께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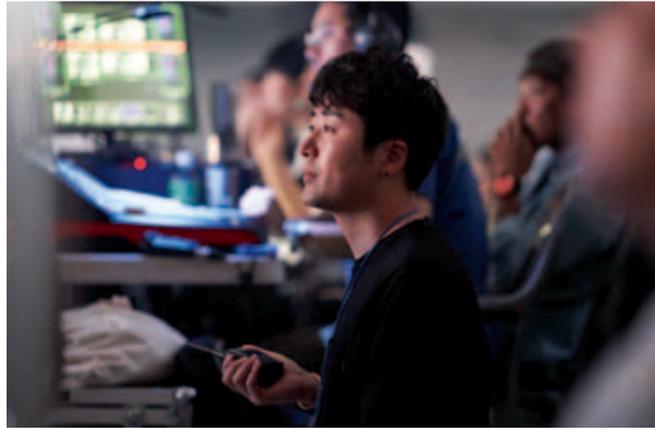
입장 2시간 전. 어느새 몰려든 관객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공연이 시작되길 기다린다. 선선해진 날씨를 즐기는 관객들의 표정에는 곧 다가올 무대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이 있다. 복잡 또한 간편하다. 그야말로, 작정하고 놀기 위해 찾은 것이다.

“고등학교 때 뉴질랜드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덕분에 좋은 공연을 볼 기회가 많이 생겼죠. 그 때부터 무대와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때마침, 대학교 내에 이벤트매니지먼트학과가 있었죠. 그래서 배우고 있던 공부를 접고 전공을 바꾸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객과 아티스트가 한마음이 되어 공연을 즐기기 위해서는 전영표 감독과 같은 사람의 숨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의 공연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할까.

“가장 먼저 아티스트와 소통하며 공연의 주제와 컨셉트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향후 만들어질 공연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죠. 그 이후에는 공연의 규모와 콘서트 장소를 섭외하고, 연출 팀과 시스템 팀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공연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됩니다. 음향, 조명, 영상, 무대 디자이너, 구조물, VJ 팀까지 수십 명의 감독이 서로 서포트하며 완성도 있는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준비 기간 동안 밝은 무대도 콘서트 당일이 되면 처음 보는 무대처럼 새롭다.

콘서트 디렉터로 활동하며,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훌륭한 무대를 만들어내는 전영표 감독. 그에겐 Renegade를 선택한 나름의 독특한 이유가 있다.

“무심결에 TV 채널을 돌리다 ‘배트맨 vs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배트맨이 ‘배트카’를 타고 무너지는 빌딩 숲을 달리는 장면이었죠. 정말 멋있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검은색 차가 도로를 중형무진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차량이 Renegade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저와 검은색 Renegade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콘서트 준비가 시작되면 몇 주간 공연장에 머물며 연출과 다양한 일정을 준비하는 전영표 감독. 얼핏 듣기에도 정신 없이 바쁠 것 같은 그에게 공연이 없는 휴일에는 주로 무엇을 하며 즐기는지 물어보았다.

“주로 다른 팀이 연출한 콘서트나 공연장을 찾아가봅니다. 일 중독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즐기러 가는 것뿐이에요. 본인이 직접 연출한 공연을 마음 놓고 즐기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면 관객의 입장으로 무대를 찾곤 하죠. 가끔은 한적한 곳에서 여유롭게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템플스테이’에 관해 알아본 것도 그런 이유와 같습니다. 깊은 산속에 숨겨진 절에서 생각도 정리하고 마음도 가다듬으려 합니다. 물론 그 여정에는 Renegade가 함께할 겁니다. 나보다는 녀석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오랜만에 오프로드를 마음껏 즐길 테니까요.”

● ●
하고 싶은 일은 끝내 이뤄내야 한다. 그것이 그의 인생철학이다. Renegade가 ‘Do Something!’을 외치듯 말이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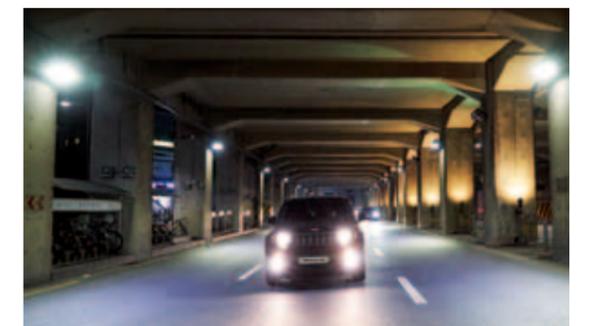
01

국내 대형 기획사에서 디렉터로 활동하며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는 전영표 감독. 그에게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2017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프리카 베라 사운드 페스티벌 (Primavera Sound Festival)’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페스티벌인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도시 전체가 페스티벌을 위해 새롭게 태어난 느낌이었습니. 광고 전광판은 물론 곳곳마다 페스티벌을 안내하는 포스터와 비주얼로 가득했죠. ‘프리카 베라’ 그 자체였습니다. 디렉터로서의 목표는 그때 생겼습니다. 한국 버전의 ‘프리카 베라 사운드 페스티벌(Primavera Sound Festival)’을 만들자!”

전영표 감독은 한계를 두며 일하지 않는다. 무대 감독과 음악 페스티벌 기획자 그리고 콘서트 연출가로서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전영표 감독. 그에겐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라이프 앤 타임이라는 그룹의 콘서트를 기획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첫 단독 콘서트였죠. 관객 반응은 물론 아티스트의 반응도 좋아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출을 담당하기도 했었죠. 아티스트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원하는 형태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 그룹의 성향이 어딘가 Renegade를 많이 닮아있는 것 같기도 해요.”

공연, 무대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해보고 싶다는 전영표 감독. 하고 싶은 일은 끝내 이뤄내야 하는 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다. Renegade가 ‘Do Something!’을 외치듯 말이다.



02



03

01 주말에는 미술관에서 시간을 보낸다. 콘서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이유도 있지만 작품 그 자체를 즐긴다.
02 운전대를 잡고 온로드를 즐기는 전영표 감독.
03 블랙 Renegade는 한낮에 더 시크하다.

Jeep Full of Adventures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에도 전세계의 서핑 열기는 식지 않는다. Surf Ranch Pro 대회 또한 마찬가지다. 이번 Surf Ranch Pro에는 Mikey Wright와 Hiroto Ohhara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참여하게 됐다. Hiroto Ohhara 선수는 들뜬 마음으로 소감을 전했다. "정말 기대됩니다! 연습할 기회가 적었기에, 비디오를 분석하며 시각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공 파도에서 경기를 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을 해야겠죠." 올해 두 번의 세미파이널을 치른 Jeep 리더보드 랭킹 11위의 Mikey Wright는 2018년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다짐했다. 거센 파도 위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반복하는 서퍼들의 모습은 산길을 달리고 계곡을 가르는 Jeep와 닮아있다. Jeep를 타고 거친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로 떠나보자. 계절이 변하고 겨울이 찾아와도 서핑에 대한 우리의 열정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Je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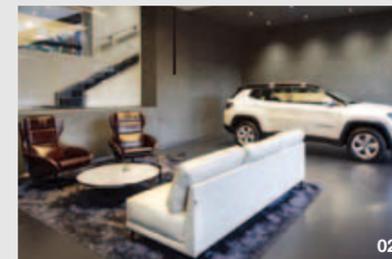




01

대전에 Jeep 전용 전시장 오픈

강서, 인천, 청담, 서초 전시장에 이어 대구 전시장, 대전 전시장이 Jeep 전용 전시장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Jeep 전용 전시장은 블랙과 내추럴 우드가 조화를 이룬 모던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으며 나무, 석재 등 자연 소재를 적용해 Jeep만의 독보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내부는 고객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차량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딜리버리존(Delivery Zone)과 Jeep 대표 차량을 만날 수 있는 히어로 카 존(Hero Car Zone), 고객이 직접 원하는 차량의 옵션을 고를 수 있는 피팅 라운지(Fitting Lounge)가 마련되어 있다. Jeep 전용 전시장에서는 고객들이 여유롭고 쾌적하게 Jeep 차량을 경험할 수 있다. 서초, 대구, 대전에 이어 10월에는 광주와 포항 Jeep 전용 전시장을 오픈한다. 분당, 천안, 부산, 제주에도 전시장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니 기대해도 좋겠다.



02



03

- 01 Jeep의 대표 차량들을 만날 수 있는 대전 전시장의 히어로 카 존(Hero Car Zone).
- 02 차량 출고 고객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대구 전시장의 딜리버리 존(Delivery Zone).
- 03 내추럴 우드로 조화로운 인테리어를 뽐낸 서초 전시장의 피팅라운지(Fitting Lounge).

Service Centers



01 서울

씨엘모터스 강남 서비스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24
 연락처 1588-4450

렉스모터스 성동 서비스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28
 연락처 02-462-3131

빅토리오토모티브 서초 서비스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83
 연락처 02-3478-0009

프리마모터스 영등포 서비스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30길 30
 연락처 02-6925-0393

02 인천

JK 모터스 인천 서비스센터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94번길 13
 연락처 032-881-3006

03 경기도

프리마모터스 일산 서비스센터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50-20
 연락처 031-922-0117

보성모터스 수원 서비스센터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59
 연락처 031-237-4230

빅토리오토모티브 분당 서비스센터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132
 연락처 031-896-0005

04 강원

강원모터스 원주 서비스센터
 위치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 14
 연락처 033-766-6301

05 충북

렉스모터스 청주 서비스센터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42
 연락처 043-277-3320

06 충남

비전오토모빌 천안 서비스센터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13-6
 연락처 041-523-2211

07 전북

라운모터스 전주 서비스센터
 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두간2길 3-26
 연락처 063-271-7300

08 전남

선일모터스 광주 서비스센터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24번가길 39
 연락처 062-676-8371

09 대전

비전오토모빌 대전 서비스센터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 1265
 연락처 042-637-8000

10 포항

강북모터스 포항 서비스센터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230
 연락처 054-283-5336

11 대구

대경모터스 대구 수성구 서비스센터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망로 177
 연락처 053-564-0110

12 울산

우진모터스 울산 서비스센터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166번길 5
 연락처 052-272-7600

13 부산

우진모터스 부산 서비스센터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101
 연락처 051-704-0065

14 창원

대경모터스 창원 서비스센터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13길 1
 연락처 055-296-1005

15 제주

프리마모터스 제주 서비스센터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22
 연락처 064-745-4588

Jeep

계절의 시작과 함께 발간되는
 Jeep Story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info@jeep.co.kr로 받으실 문의
 성함과 연락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www.jeep.co.kr   



Jeep®



QR코드 찍고 특별한 행운을 잡으세요!
www.jeep.co.kr   